

먹이의 산도와 당도에 따른 아메리카 동애등에의 음식물 처리 능력 비교

농림수산 부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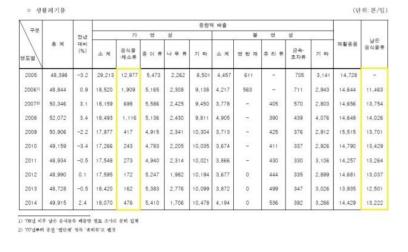
Dorcus 팀

1학년

김준희 송동욱 백승우

1)탐구동기

-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
- 그러던 도중 신문 기사에서 동애등에 유충이 구제역 폐기 가축을 95% 가까이 분해를 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다







- 동애등에는 지렁이 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다고 해서 동애등에를 대량 센터같은 곳에 많이 모아두고 음식물을 분해시키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거 같다 생각함
- 음식물의 종류가 아닌, 음식물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동애등에가 가장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당도와 산도를 알아보고자 함

2)실험 방법

- 하나의 대조군과 6개의 실험군을 준비한다
- 3개는 산도를, 3개는 당도를 조작한다
- 실험군의 조작은 다음 표처럼 한다

	대조군	산도 실험군 A	산도 실험군 B	산도 실험군 C	당도 실험군 D	당도 실험군 E	당도 실험군 F
당도	X	X	Х	Х	50Brix 설탕물	45Brix 설탕물	25Brix 설탕물
산도	X	pH3 레몬즙 희석액	pH4 레몬즙 희석액	pH5 레몬즙 희석액	X	X	X

○ 모든 실험군과 대조군에게는 다음과 같은 양의 일정한 먹이를 준다

먹이	무게		
쌀밥	200g		
과일 (사과, 풋사과, 토마토)	500g		
총합	700g		

○ 각 사육통에 동애등에와 톱밥을 0.5kg 씩 넣어주고 먹이를 넣어준다



○ 모든 조작을 마친 대조군과 실험군에게 해당 용액을 뿌려주며 10일간 관찰을 하며 변화와 특징 등을 기록한다



3)탐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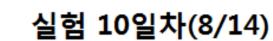
○ 대조군에서는 3일차 까지는 크게 차이를 안보이다가 약 4~5일 째부터 음식물 분해에 속도를 가하더니 실험 마지막 날에는 상당량을 분해했다

실험 1일차(8/5)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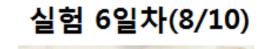




○ 산도를 조작한 실험군은 타 실험군이나 대조군에 비해서 분해 속도가 느렸으며 마지막 날이 되어도 상당량의 음식물이 남아있었다

실험 1일차(8/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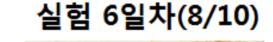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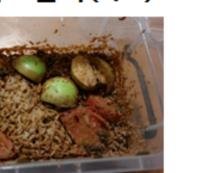
○ 당도를 조작한 실험군은 날이 지나감에 따라 더욱더 빠르고 많은 양의 음식물을 분해하더니 마지막 날에는 대부분의 음식물을 분해했다

실험 1일차(8/5)





실험 10일차(8/14)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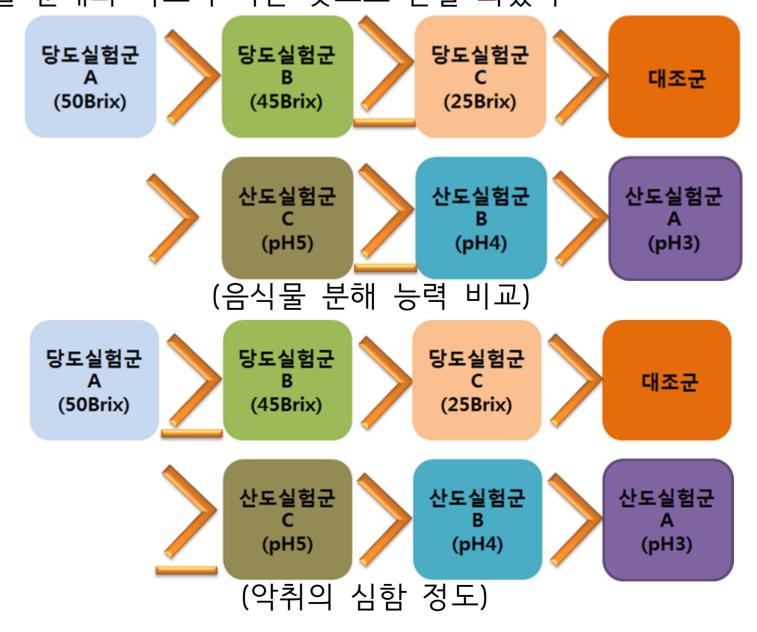


○ 악취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상대적인 수치 1~10으로 나타나게 하였다. 10에 가까울수록 악취가 심한데, 산도를 조작한 쪽이 악취가 비교적 약했다

	대조군	산도 실험군A	산도 실험군B	산도 실험군C	당도 실험군D	당도 실험군E	당도 실험군F
Α	5	4	4	5	8	8	6
В	6	3	5	6	9	9	8
С	6	5	6	6	7	7	5
D	7	3	5	7	8	8	6
E	8	6	6	7	10	10	10
F	7	4	4	6	10	8	8
G	5	2	3	3	9	8	6

4)결론 및 위 실험의 전망

○ 아래의 그림을 보면 산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약하고 당도가 높을수록 음식물 분해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관찰 되었다



- 이를 통해서 대형 센터에서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 때 에는 당도를 높혀서 처리율을 높이고 약산성을 통해 악취를 제거하는게 효율적이란 결론을 내렸다
- 위 실험은 갈수록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경제적인 손실도 막고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다